

올해 9월까지 산재사망 443명 떨어짐·화재·폭발 사고 증가세

고용부, 재해 사망사고 통계
50인미만 사업장 사고사망 56.2%
50인 이상 제조업 전년비 46.3%
건설업 203명·떨어짐 163명 최다

올해 3분기까지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443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 50인(약)미만 사업장의 사고사망자가 절반을 넘은 가운데, 제조업의 경우 50인(약)이상 사업장 사고사망자가 전년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3분기(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잠정)을 발표했다.

사망자는 전년동기(459명) 대비 16명(3.5%), 사망사고 건수는 38건(8.5%) 감소했다. 지난 6월 23명이 사망한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등 대형 사고 영향으로 상반기까지 사고 사망자수가 증가했으나, 3분기 감소세로 전환했다.

특히, 건설업의 전년동기 대비 사고 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전체 사고 사망자수 감소를 견인했다.

업종별 사망자 수는 건설업이 203명(2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134명(108건), 기타 업종 106명(103건) 순으로, 전년 대비 건설업이 감소한 대신, 제조·기타업 사망자가 늘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약) 이상은 194명(166건)으로 2명(1.0%) 증가했고, 50인(약) 미만은 249명(245건)으로



24일 오후 경기 화성시 서신면 소재 일차전지 제조 업체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뉴시스

18명(6.7%) 감소했다. 특히 제조업 50인(약) 이상 사업장에서 전년 대비 46.3%(25명) 증가했다.

50인 미만 중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면서 5인 이상 ~ 50인 미만 사업장 사고사망자는 139명으로 전년보다 9명 감소했다. 상시근로자 수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사고사망자는 77명이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163명)이 가장 많았고, 물체에 맞음(62명), 끼임(48명), 화재·폭발(43명), 부딪힘(41명), 깔림·뒤집힘(29명), 감전(19명) 등의 순이었다. 전년동기 대비 부딪힘, 깔림·뒤집힘 등은 감소한 반면, 화재·폭발, 감전, 물체에 맞음은

증가했다. 지역별 사고사망자는 경기(136명)가 압도적으로 많은 가운데, 경남(40명), 서울(37명), 부산(32명), 전남(32명), 경북(31명), 전북(24명), 충북(22명) 순이었다. 정부는 향후 중대재해다수 발생 업종·지역을 집중 모니터링해 현장 점검·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사망사고 예방을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업안전 점검·감독이 현장에서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화하고,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노·사가 위험성평가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도하는 등 사망사고 감소세가 연말까지 이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상한 연장

농식품부·해수부·법무부 제도 개선
비자 통합·체류기간 최대 8개월로 연장
체류일수 보장서 주당 35시간 보장

농어촌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시 준수 기준이 현행 '체류일수의 75% 이상 고용 보장'에서 '주당 35시간 임금 보장'으로 바뀐다. 정부는 현행 제도의 경우 농어가의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를 반영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법무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계절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제도는 파종기·수확기에 단기간 및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업 분야에서 최대 8개월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고용주는 체류 기간의 75% 이상(90일 체류의 C-4 자격 근로자의 경우, 68일 이상)을 고용하고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호우·폭염 등의 여파로 일을 할 수 없는 날에도 고용을 보장해야 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게다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농가의 부담이 더 커지면서 민원이 빈번해졌다.

이에 정부는 의무 고용 기준을 '체류기



지난 8월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간 주당 35시간 이상 임금 보장'을 추진 중이다. 농번기에 주당 48시간 일하고 폭염·장마가 예상되는 7~8월에는 주당 35시간 일하는 등의 방식으로 유연한 근로계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 등은 "2015년 계절근로 제도 시행 이후 체류 기간이 연장되고 농어업 근로 환경이 변화한 점, 근로자의 충분한 휴식 보장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기준을 개선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농협이 고용농가에 일일 단위로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자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 공공형 운영 사업장에서 농산물 선별·세척·포장 및 1차 가공, 육묘 관리 등도 할 수 있도록 업무 허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농협 사업장

내 근무는 인당 근로시간의 30% 이내에서 허용한다. 또 결혼이민자가 초청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의 범위는 4촌 이내 친척과 배우자 최대 20명에서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최대 10명으로 변경한다. 허위·과다 초청에 따른 불법 취업 알선 차단을 위함이다.

인원 축소는 내년 1월 1일부터, 친족 범위 축소는 내후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두 가지로 나눠 운영하오던 계절근로 외국인 비자는 체류 기간과 관계 없이 단일 체류 자격(E-8)으로 통합한다. 아울러, 계절근로자가 연장 절차 없이 최대 8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체류 자격 상한은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K-푸드+, 9700만 달러 규모 수출 상담

31개국 바이어와 현장 계약·협약

지난주 서울에서 개최된 2024 수입 바이어 초청 'K-푸드+' 수출상담회에서 97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이 이뤄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가운데 900만 달러 규모의 현장 계약 및 업무협약(MOU)이 체결됐다고 26일 밝혔다.

'K-푸드+'란 농식품에 더해 스마트팜, 농기계, 비료, 농약, 종자, 동물용 의약품, 반려동물 음식 등을 아우르는 용어다. 20~22일 기간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이번 수출상담회엔 전 세계 31개국 해외 바이어 92개사 및 국내 수출기업 245개사가 참가했다. 수출 상담은 모두 1729건, 9700만 달러 규모로 실시됐다. 그중 41건, 900만 달러 규모의 현장 계약 및 업무협약(MOU)이 맺어졌다.

농식품 분야에선 전통 된장을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든 고체형 조미 된장과 피자 시장 개척을 위한 가정간편식(HMR) 1인 피자 등이 눈길을 끌

었다. 또 신선 과일 채소를 착즙한 주스, 냉동 김밥, 떡볶이, 김말이, 냉동만두 등 한국 길거리음식도 수입업체 사이에서 호응을 얻었다.

행사에서는 또 중소기업 제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 대기업의 해외 현지 매장 판촉, 홍보, 제품 현지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식'이 체결됐다. BGF리테일, ㈜동서웰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이 참여했다. 또 해외에 진출한 국내 다른 편의점 바이어들도 수출국 현지 시장 편의점 입점을 위한 과자류, 냉동 및 냉장식품류, 밀키트, 음료 등 제품을 중심으로 집중 상담을 진행했다.

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 분야에선 유기농업자재, 펫푸드 등이 중국, 태국, 폴란드 바이어들에게 큰 관심을 끌어 현장계약이 체결됐다. 외식 가맹(프랜차이즈) 분야의 경우, 한식·분식·치킨·커피·외식기업 등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루마니아 수입업체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세종=김연세 기자

베트남 상하수도 사업 등 녹색시장 개척

환경부, 재활용 산업지구 조성 논의

환경부가 이달 하순 녹색산업 수주 지원단을 베트남 하노이에 파견한다. 현지 녹색산업 시장에 국내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수주지원단은 베트남 건설부와 오는 27일(현지시간) 고위급 회담 및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한-베트남 상하수도 협력 및 재활용 산업지구 조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베트남 건설부가 우리나라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상하수도법' 제정에 환경부의 정책과 기술을 알려 베트남 상하수도 시장에 국내기업이 선제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토론회에서는 베트남 건설부 응우옌 프엉 반 차관의 개회사 및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의 축사에 이어, 베트남 건설부에서 자국의 '상하수도법' 제정 경과를 발표한다. 이후 한국

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국내 상하수도 정책 및 기술 기준 등 물산업 전반을 소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또 베트남 하노이시 천연자원환경부에서 관계자를 만나 베트남 자원재활용산업지구 설립을 위한 후속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베트남 자원재활용산업지구는 판 민 쩌 총리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순환경제 사업이다. 올해 7월 양국 총리 임석하에 양국 장관 간 자원재활용산업지구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베트남 자원재활용산업지구는 우리나라와 베트남 현지 기업이 참여하는 자원순환 복합단지다. 현지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시설의 역할뿐만 아니라 베트남 현지 기업들과 상호 교류하고 우리나라의 자원순환 분야 우수 기술을 알리는 발판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비전공에도 10개월만에 기술자로 재탄생"

폴리텍대, '하이테크과정' 주목

#김정(33·남) 씨는 밴드 '케슈넛 블라썸'의 베이시스트로 활동하며 실용음악학원 강사로 일했다. 생활이 어려워 알바와 창업을 했으나 녹록하지 않았다. 새 길을 모색하던 중 지난 3월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 시소소프트웨어과 하이테크과정에 입학했다. 비전공자지만 진로 전환에 성공해 현재 유니베라 비전개발팀에서 쇼핑물과 앱 기획을 담당하는 개발자로 일하고 있다.

그는 "정보기술 산업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고 생각한다"며 "인공지능 분야는 실시간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교육과정이 비교적 짧고 집중적으로 배우는 하이테크과정을 활용하면

본인의 가능성과 진로를 다방면으로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폴리텍대학은 26일 김 씨와 같이 '하이테크과정'을 통해 첨단 분야 기술 교육을 받고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의 사례를 소개했다.

폴리텍대학 하이테크과정은 청년층 선호도가 높은 미래 유망 분야 중심으로 직종이 구성돼 있고, 비전공자라도 약 10개월 동안 공부하면 취업이 가능한게 특징이다.

지난해 이 과정에 입학한 청년 중 57.7%가 이공계 전공자가 아니었고, 수료생 10명 중 7명(70%)이 취업에 성공했다. 취업의 만족도를 가늠할 수 있는 3개월 취업유지율은 93.8%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세종=한용수 기자